

# 한국교회, 처음 예배당

이상규 (고신대학교 교수, 역사신학)



구본선, 장석철 | 『한국교회, 처음 예배당』 | 흥성사, 2013

모처럼 마음에 드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한국교회, 처음 예배당』 제목도 그렇지만 섬세한 편집, 아름다운 장정, 사진을 곁들인 해설, 무엇보다 책을 감싸고 있는 역사의 짙은 향기가 나를 유혹했다. '1세대 교회에 서린 처음 사랑을 더듬어 가는 여정'이라는 해설적 인도가 또한 매력적이었다.

한국교회의 역사와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의 신심(信心)이 어우러져 세워진 예배 공간으로서의 교회당, 저자는 그 역사의 자취를 따라 전국을 돌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22개 예배당을 만났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정동제일교회, 승동교회, 강화읍교회, 온수리성당, 서도중앙교회, 수촌교회 등 6개 예배당을, 충청지역에서는 청주제일교회, 청주수동교회, 진천교회, 음성교회, 부대동교회, 공주제일교회, 강경북옥교회 등 7개 예배당을, 전라지역에서는 두동교회, 금산교회, 목포양동교회, 목포중앙교회 등 4개 예배당을, 경상지역에는 대구제일교회, 부산주교좌성당, 안동교회, 척곡교회, 행곡교회 등 5개 예배당을 소개한다.

이들 예배당은 각기 다른 형식과 구조로 되어 있다. 강화읍성당이나 온수리성당과 같은 전통 한옥 예배당이 있는가 하면, 정동제일교회나 공주제일교회 등과 같이 붉은 벽돌 예배당도 있고, 대구제일교회나 안동교회처럼 석조 건물도 있다. 한국교회 건물의 구조는 거의가 장방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영천의 자천교회나 강경북옥교회는 정사각형으로 지어졌다. 또 전라도 김제의 금산교회나 전북 익산의 두동교회는 ㄱ자형이다. 초기 한국교회에서 ㄱ자형 예배당은 반상(班常)의 차이만큼이나 심했던 남녀유별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구별이 없지만(갈 3:28), 유가적 윤리가 깊이 배어 있는 조선에서 남녀가 동석하는 것은 따를 수 없는 낯선 가치였다.

그래서 ㄱ자형 교회는 '한국적' 건축 양식이다. 목회자와 여자 성도 사이에도 휘장을 쳤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남녀 간의 구분은 이해할 만하다. 현재 남아 있는 김제시 금산의 ㄱ자형 예배당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에 소개된 22개 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구본선)와 사진작가 겸 건축가(장석철)의 만남이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한국에는 5만여 개 이상의 예배처가 있지만 80년 이상의 건축령을 가진 예배당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국을 돌며 신앙과 역사가 아우러진 예배당의 역사 흔적을 찾아 잊혀진 세월의 간격을 메워 주고 우리의 신앙유산을 소개해 주고 있는 이 책은 기독교문화유산보존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신앙과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신앙과 역사가 간간히 소개·언급되고는 있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것과 한국 예배당 건축의 역사적 추이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소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구 교회의 예배당 양식은 건축 당시 교회가 처한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4세기 이후로는 서양의 건축 양식을 반영하기도 했다. 초기 교회는 예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두라-유로포스(Dura-Europos)에서 256년경의 것으로 최초의 교회당 건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때까지는 가정교회 중심이었다. 예배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 없었고 개인 주택을 예배처로 개조한 형태였다. 브래들리 블루(Bradley Blue)와 리처드 크라우다이어머(Richard Krautheimer) 등에 따르면 기독교가 4세기 초 로마 제국에 공인받기까지(30-313년)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소는 세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첫 번째 시기는 대략 150년까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소는 신자들의 가정집이었다.

그러나 150년경부터 250년 어간을 포괄하는 두 번째 시기에는 개인 주택을 개조하여 집회소로 사용했고, 대략 250년에서 313년까지의 세 번째 시기는 콘스탄티누스가 바실리카 교회당을 세우기 전으로, 큰 건물이나 홀이 집회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처 및 집회소는 개인의 가정집(domus ecclesiae)에서 개조된 가정집으로, 보다 넓은 홀이나 건물(aula ecclesiae)로, 그리고 4세기 이후 바실리카(Basilica) 교회당으로 변천했다는 것이다.

바실리카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방형의 건축 양식으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개방된 홀이 있고 줄을 맞추어 기둥이 세워져 있다(列柱). 이것은 당시 로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으로, 줄을 맞추어 세워진 기둥 위에 지붕을 덮은 공공건물이나 시장 등이 있었다. 바실리카의 출현은 교회당 양식 혹은 기독교 건축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 후 유럽 사회의 건축 양식과 함께 교회당 구조도 변화를 겪게 된다. 이점 또한 자연스런 현상인데, 중세의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혹은 네오 고딕식 등 다양한 형태가 그것이다.

그런데 피선교국인 우리나라의 교회당은 선교국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고유한 혹은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선교 초기에는 전통 한옥을 집회소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는 전통 한옥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다. 강화읍성당이나 온수리성당 등 성공회의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강화읍교회당을 건축했던

트롤로프, 곧 조마가 선교사는 조선 땅에 오면 조선 옷을 입어야 하듯이 교회당 건축 양식도 조선식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의주로 가서 백두산 적송(赤松)을 구해 뗏목으로 강화까지 운반하였고, 기와도 강화 흙으로 구웠다고 한다. 당시 궁궐이나 사찰은 사방형 건물로 정문이나 대문을 남쪽에 두었지만, 트롤로프는 정문을 서쪽에 두는 서향 건물로 짓고 정방형 바실리카 양식을 따르되 기와를 올리고 추녀를 달아 부연을 연결하여 부드러운 곡선미를 표현함으로써 한국적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한다. 개신교에서는 예배당 건축에 한국적인 것보다는 서구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1910년 이후에 건축된 한국(개신)교회는 보통 19세기 미국교회의 건축 양식에 따라 세워졌다. 돌아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는 분별없이 서구적인 예배당 형식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회당 건물은 역사와 신학의 산물인데, 서울 한복판에 아름답다며 고딕식 건물을 건축하는 것 또한 분별없는 모방이 아닐까.

이러한 흐름에도 서도중앙교회, 청주수동교회 등은 예외적으로 한국적 정취를 보여주는 곳이다. 100여 년 전 서구적인 대세를 거부하고 세워진 한옥 예배당이나 서양식 구조를 따르되 마룻바닥 등 한국적 형식을 가미하여 세워진 예배당에는 우리의 고유한 그 무엇이 담겨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진천교회의 경우처럼 팔작지붕 겹처마에 십자가 세 개를 장식한 한옥 예배당을 건축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 책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형태의 예배당에 대한 건축학적 안내와 건축에 얽힌 스토리텔링으로 한국교회의 시원과 발전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일종의 사진으로 보는 한국교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저자의 한국교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예배당 건축에 얽힌 담화들은 미지의 땅을 찾아가는 나그네를 위한 지도와 같다. 또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선교사의 도래와 교회 설립, 예배당 건축과 신앙 전승에 대한 소중한 안내서가 되어 줄 만하다. 이 책을 들고 저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프레드릭 랭브릿지(Frederick Langbridge, 시인 1849-1923)의 말이 생각난다. “똑같은 창살로 내다보는 두 사람, 한 사람은 흙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본다.” 이 책을 통해 땅과 하늘, 신앙과 역사, 건물과 사람을 동시에 보게 되었다.



**이상규**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이자 부총장이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거쳐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신학대학, 호주신학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사상연구소장, 신학과장, 교무처장, 신학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연구이사, 개혁신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으로 있다. 쓴 책으로는 「교회개혁사」, 「교회개혁과 부흥운동」,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교양으로 읽는 역사」 등이 있다.